

무왕[武王]

당의 등주(登州)를 공격하다

미상 ~ 737년(무왕 18)

1 개요

무왕(재위: 719~737) 대무예(大武藝)는 아버지 고왕(高王) 대조영의 뒤를 이어 발해의 제 2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관련사료](#)

시호(諡號)에서 나타나듯이 대무예는 재위 기간 동안 당과 대립하는 가운데 영토 확장에 힘써 이후 아들 문왕(文王)이 안정적으로 체제 정비할 수 있는 외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주변 민족의 복속과 영토 확장

『신당서(新唐書)』에서는 “무왕이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오랑캐들이 겁을 먹고 섬겼다.”라고 [관련사료](#) 하였고, 727년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는 “...열국(列國)을 주관하고 제번(諸蕃)을 거느려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遺俗)을 이었다.”고 [관련사료](#) 하여 무왕이 즉위 초반부터 말갈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을 복속시켜 나가면서 영토를 확장하였고 제번을 거느렸다고 자평할 만큼의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흑수말갈(黑水靺鞨)’ 토벌

726년(무왕 8) 당이 흑수말갈 지역에 흑수주(黑水州)를 설치하면서 [관련사료](#) 이전까지 발해의 영향 아래 있었던 흑수말갈이 당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이 흑수주를 설치한 것은 무왕의 세력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편이었다. 원래 흑수말갈은 발해의 통제 아래에 있었고, 발해의 허락 하에 당과 교섭을 했었다. 그런데 흑수말갈이 단독으로 당과 접촉하였고 결국 당은 그 지역에 흑수주를 설치하여 당의 영향 아래 두었던 것이다. 흑수말갈의 이탈은 다른 말갈 세력들의 이탈로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발해로서는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다.

당의 흑수주 설치가 발해에 알려지자 발해 조정에서는 즉각 흑수말갈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서 대립각을 세운 인물은 바로 무왕과 무왕의 동생인 대문예(大門藝)였다. 무왕은 흑수말갈이 당과 함께 모의하여 앞뒤에서 발해를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먼저 흑수말갈을 공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문예는 개원(開元: 713~741) 초에 숙위(宿衛)로서 당에 체류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당의 사정에 밝았다. 따라서 무왕에게 당의 군사력이 발해의 만 배이고, 전성기의 고구려도 30만의 강병(強兵)으로 당에 저항하다 결국 멸망하였는데 현재 발해의 군사는 고구려의 삼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현실적으로 승산이 없고, 이미 당의 영향 아래 들어가 있는 흑수말갈을 공격하는 것은 당과 원수가 되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련사료](#) 대문예는 발해의 흑수말갈 토벌이 당과 발해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왕은 흑수말갈의 토벌을 결정하고, 대문예를 그 선봉으로 내세웠다.

4 대문예의 당으로의 귀순

대문예는 왕의 명령이므로 거역하지 못하고 국경에 이르렀으나 다시 무왕에게 토벌을 그만둘 것을 상소하였다. 무왕은 대문예가 싸울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종형(從兄)인 대일하(大壹夏)를 보내 대문예를 대신하게 하고 대문예를 소환하여 죽이고자 하였다. 대문예가 군대를 버리고 당